

성경의 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포스트모더니즘 WCC 극복하기

창1:1

지금부터 100-150년 전 미국과 전 세계를 강타한 자유주의가 이제 완전히 세상을 정복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목사들도 성경대로 하다가는 망할 것 같다는 위기의식

그래서 교회들이 WCC, WEA, 로잔 대회 등의 타협의 길로 들어섰다.

1960년대 이후로 포스트모더니즘 시대:

특징: 한마디로 상대주의. 절대적 진리는 없다. 모든 가치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어떤 사실에 대한 가치판단은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한다.

여기에서 다원주의가 나온다(Pluralism): 복수를 인정해야 한다.

종교다원주의, 정치다원주의, 문화다원주의 등이 존재하며, 개인의 주관을 중요시하는 다원주의적 가치관은 사회적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강해지고 있다.

모든 종교는 같다. 천국에 이르는 길은 다양하다.

동성애, 이성애, 양성애 아무 문제없다.

남녀만 있는 게 아니라 성이 무한대로 많다 등등.

결국 사람들이 스스로 신이 되고 있다. 창3:5 눈이 열려 신들과 같이 됨

기독교의 감소, 2024년 9월 국내 교단들의 총회, 연회

눈여겨보아야 할 것: 교인들의 두드러진 감소

가장 큰 교단 예상 통합: 94,000명 감소, 합동 10만 명 감소, 고신 7000명 감소, 감리교, 순복음, 성결교 등 다 합치면 적어도 5% 이상 감소

더 큰 문제, 교인들의 다수가 50대 이상, 유치부부터 고등부까지는 15%, 이런 추세로 20년 더 나가면 기독교 인구는 전체 국민 20%에서 10%로 줄어들게 된다.

아펜젤러를 파송한 미국 감리교회, 얼마나 망가졌나?

[아펜넷] UMC 뉴욕연회 감독, 동성애에 대한 입장(*), 2019년 2월 4일

한인교회와의 인터뷰, 토마스 빅커튼 UMC 뉴욕 연회 감독 BISHOP THOMAS J. BICKERTON
염려의 원인: 동성애 목사 혹은 찬성 목사가 한국 교회에 파송되면 어떻게 하느냐?

헝크 연구소 영상 (*)

이러더니 결국 미국 연합감리교회 2024년 올해 동성애 목사 인정

결국 미국 감리교는 둘로 나뉘

언더우드를 파송한 미국 장로교회(PC USA), 사정이 동일하다. 매해 동성애 목사, 동성 결혼 안건(*) 성공회도 말할 것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성장하겠는가? 동성애 목사를 허용하는 교회가 성장하면 이것 또한 큰일
오늘 < >, 뉴에이지 시대, 다양한 신들, 과연 이런 신들이 존재하는가? 성경은 일신론을 말한다.

Monotheism, 세상은 Polytheism 범신론 혹은 다신론

성경과 하나님 그리고 세상과 세상 사람들, 과연 누가 옳은가?

우리는 이성과 양심을 가졌으므로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다.

분별하고 성경의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신은 죽었다.

포스트모더니즘의 선구자. 니체, 1825년 <즐거운 지식>, '신은 죽었다'

여기의 신은 기독교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니체는 목사의 아들 신학 전공

'추구해야 할 절대적 가치는 이제 더 이상 없다'

나무위키 해설: 신이라는 절대적 가치의 사라짐은 인간이 목적의식을 잃고 허무주의에 빠지게 만들었다.

이제 우리는 현실에서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라도 새로운 목표를 가져야만 한다. 그리고 그 목표는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수밖에 없다. 즉,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작업은 '신이 사라진 세계'의 인간에게 있어서 필수적인 행위인 것이다. 신을 몰아내고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을 마음껏 발휘하면서

세상을 살아간다.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더라도, 또 다른 목표를 끊임없이 세움으로써 허무에서 벗어난다.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 '자신만의 가치'를 새롭게 만들어간다. 그 가치는 자신이 만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만큼은 스스로에게 만족감을 주는 것일 테다. 이것이 신이 죽은 세계에서 인간의 삶을 충실히 영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이다.

마르크스의 공산당선언(1848년 2월 21일), 신은 없다.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이후로 20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신은 죽었다 혹은 신은 없는데 매몰되기 시작했다.

자유주의, 포스트모더니즘 시대

인간을 최우선으로 두고, 인간을 신으로 삼고 인간의 목표 추구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다.

이러는 가운데 인도의 힌두교가 뉴에이지라는 이름으로 온 세상에 퍼지기 시작했다.

요가, 최면, 만트라 등의 영적 훈련을 통해 인간을 신의 경지 즉 열반의 세계로 인도해 준다는 사상 그래서 지금 세상에는 자칭 타칭 신들이 많다.

그 결과는 앞서 보여 준 대로 기독교의 대폭적인 감소

포스터모더니즘 시대 기독교인들의 다짐

오늘날 우리 앞에 놓인 위협을 직면하고 도전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취해야 할 첫 번째 단계는 도전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다. 오늘과 내일의 전쟁터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교리이다. 이교도들에게는 모든 것이 신성하고 우주가 신이다. 그들에게는 신이 주어가 아니라 서술어이다. 따라서 "사랑은 신이다"(Love is God)라는 말은 우리 창조물이 우주 안의 요소에 신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는 정반대의 사실을 발견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근원적인 주체이며, 창조물은 서술어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God is love)라고 말해야 한다. 창조주 하나님만이 신이시며, 우주의 다른 모든 것은 그분에 의해 그리고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다. 이것을 확고해 해야 포스터모더니즘 시대에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굳건히 믿음생활 할 수 있다.

성경의 한 하나님(One God)

성경을 펴면 첫 번째 책인 창세기가 나온다. 기원에 대한 책

오늘 읽은 창세기 1장 1절,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처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했다'가 아니다.

창1:1은 창조자와 창조물을 나누는 엄숙한 선포: 성경적 우주론과 신론

지금부터 3,500년 전 모세 시대, 이집트, 가나안을 포함해서 온 세상은 다신론, 범신론 세상

그 시대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온 세상의 창조자는 나밖에 없다. '나 외에는 다 창조된 존재이다'를 선포하심.

창1:1을 자세히 읽고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기독교가 무엇인지 잘 이해할 수 있다.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 종교 시스템, 그런데 이 하나님은 여럿이 아니라 한 하나님, 단일신

신6:4-5, 한분 하나님 No! 엄밀한 의미에서 유일하신 하나님 No! 한 하나님

유일하다: 오직 하나밖에 없다. 그는 유일한 생존자이다. 유일한 혈육이다. 여럿 중에 하나로 인식될 수 있다.

단일하다: 단 하나로 되어 있다.

지난 시간 사도 바울의 아테네 선교 너희가 알지 못하고 경배하는 그분, 그 하나님을 내가 알려주겠다(행 17:23). 오늘 구체적으로 성경의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

기독교의 진리는 배타적이다. 여럿을 말하지 않는다.

엡4:4-6, 4 너희를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같이 한 몸과 한 성령이 있고 5 한 주와 한 믿음과 한 침례가 있으며 한 하나님이 계시니 곧 모든 것의 아버지시라. 그분께서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에 두루 계시며 너희 모두 안에 계시느니라.

창1:1을 믿는 사람이라면 성경의 다른 부분을 믿는 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 한 구절은 사람이 만든 여러 가지 그릇된 이론을 산산조각 낸다.

하나님이 계시므로 무신론은 존재할 수 없다.

창조주 하나님과 창조물은 전혀 다른 차원에 있으므로 범신론도 존재할 수 없다.

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으므로 다신론도 무효하다.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으므로 물건이나 천체를 숭배하는 유물론도 무효하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으므로 진화론도 성립되지 않는다.

영원하신 하나님

여기의 처음 혹은 시작은 우주의 시작을 말한다. 즉 하나님의 창조물(창조 세계)의 시작을 말한다.

하나님의 시작이 아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시작이 없는 분이다. 창조물만 시작이 있다.

합1:12, 오 주 내 하나님이며, 나의 거룩하신 분이여, 주께서는 영원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이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 하나님은 기원, 시작이 없다, I AM THAT I AM(출3:14).

이런 존재는 우주 공간에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그분은 절대적인 분이다.

놀랍게도 성경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며 하나님의

본성(영원성)에 참여하는 특권을 주셨다고 한다(벧후1:4). 이것이 기독교의 구원이다.

그것이 내 힘이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개인적인 구원자로 믿고 신뢰할 때 거저

주어진다. 그래서 구원받으면 하나님처럼 영원히 거하는 존재가 된다. 요3:16

창조자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은 창조자이다. 사40:25-26

하나님은 만물의 근원이다. 롬1:20

시계와 시계를 만든 자와는 완전히 다르다.

이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 기독교에는 말씀만으로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한 하나님이
계신다. 그 하나님은 우주의 일부가 아니다. 완전히 창조 세상과는 별개의 존재

그래서 진화론은 성립되지 않는다. 무생명에서 생명이 나오고 저등 생명에서 고등 생명이 나오는 것은
불가능 그 자체. 집에 가거든 손이나 발을 한번 유심히 보라, 우연히 생길 수 있나?

사실 진화론을 믿는 것은 정말로 대단한 믿음이다.

돌덩어리가 오랜 시간이 지나면 사람이 된다니? 얼마나 큰 믿음인가?

초월자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용어, 초월자, 물질계를 벗어난 존재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영이다. 물질이 아니다.

그리스/로마 신화, 힌두교, 불교, 뉴에이지처럼 하나님이 사람 같은 존재라면 우리는 그런 신을 믿을
필요가 없다.

우주 공간이 무한대로 크다. 우주 공간/하나님=0이 된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무한대의 무한대로 크신 분이다. 초월적인 존재이다.

초월 명상같이 인간의 수련을 통해서 최면이나 명상을 통해서 도달하는 그런 유한한 초월 세상 혹은
존재 말고

자유주의, 포스터모더니즘의 특징: 초월자 무한대의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치부함
이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는 하늘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 하나님은 시작이 없었지만 창조 세상은 시작이 있었다;
- 하나님은 독립적이지만 우리는 의존적이다;
- 하나님은 영원의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시작이 있다;
- 하나님은 불변하지만 우리는 변화하고 있다;
- 하나님은 무한하지만 우리는 유한하다;
- 하나님은 전능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그렇지 않다;
-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지만(전지) 우리의 지식은 제한적이다;
- 하나님은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아시지만 우리는 알지 못한다;

- 하나님의 임재는 우주의 구석구석에서 느껴지지만(편재), 우리는 공간과 시간에 제한을 받는다;
- 하나님은 절대적이고, 우리는 상대적이다;
- 하나님은 완전한 존재이고, 우리는 파생적 존재이다.

주권자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 자유자재로 창조 세상의 역사에 개입하시고 역사를 섭리로 인도하신다.

시115:3,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하늘들에 계시며 무엇이든지 친히 기뻐하신 것을 다 행하셨도다. 그분은 자기 마음대로 하시지만 자신의 성품에 어긋나는 것은 행하지 않는다.

그래서 주권적인 하나님은 100% 옳은 것만을 행하신다. 느부갓네살의 고백(단4:34-35)

성경은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드러내는 계시이다.

이런 무한대의 하나님을 유한한 사람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서 알려주시기 때문에, 이것을 계시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성경의 하나님은 자신과 자신이 이룬 일과 앞으로 자신이 이룰 모든 일을 자세히 드러내어 알려주시는 계시의 하나님이다. 사46:9-10

성경의 시작, 창세기, 성경의 끝 계시록, 그 안의 66권의 책, 하나님의 객관적 계시

이러한 '계시의 하나님'을 성경이라는 '기록된 개관적 계시'를 통해서 믿는 것이 기독교이다.

그러니까 크리스천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 성경 말씀

마4:4

마24:35

성경의 믿음은 창1:1과 함께 시작된다.

그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것, 이것이 사람의 진정한 의무

그 결과 시95:1-8

계4:11, 구원받은 자들이 하늘에서 영원토록 이 하나님께 경배를 드린다.

창조자 초월자 영원하신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구속자, 우리의 구원자

그래서 우리는 영원토록 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다.

땅 위에 있는 존재들, 땅 아래 있는 존재들, 땅에 있는 존재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영원히 찬양을 드린다.

이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해야 한다.

'신은 죽었다', '신은 없다', 혹은 '내가 신이다'를 주장하는 포스터모더니즘 시대에 바로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기독교이다.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구원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